

패션 컬렉션의 신발 디자인 연구

- 2001년 S/S - 2008/09년 F/W 파리·밀라노·뉴욕·
런던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은영·이미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신발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신발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 영역을 확인하고 미래의 신발 트렌드 예측과 디자인 발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패션 잡지와 웹 사이트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발표된 사진 자료를 추출하여 신발의 종류와 형태, 컬러,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발의 종류는 구두가 가장 많았고, 샌들, 부츠, 슬리퍼 순이었다. 토와 굽은 테퍼리드 토와 스파이크 힐이 가장 많았다. 색채는 다색보다 단색이 약 두 배로 많았고, 단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유채색에서는 YR계열, 무채색에서는 블랙이 가장 많았다. 다색에서는 액센트 배색이 가장 많았고, 그라데이션 배색은 빈도가 낮았다. 소재는 단일 소재가 혼합 소재보다 많았는데, 단일 소재는 가죽, 페이턴트, 스웨이드, 페브릭, 비닐, 고무 순이었고, 혼합 소재는 가죽+페브릭이 가장 많았다.

주제어: 신발, 신발 디자인, 토탈 패션, 패션 컬렉션, 패션 트렌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패션이 다양화, 개성화되면서 하나의 패션 스타일을 구현하는데 패션 액세서리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패션의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조형적인 요소인 패션 액세서리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의상보다 재료가 형태에 있어서 제한을 덜 받아 생동감 있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 현대 패션에서 토탈 패션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패션 액세서리 중 실용성과 표현성이 모두 존재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신발(footwear)²⁾이다. 신발은 보조적 피복, 즉 실용적 장신구로서 의복과 같이 인간 생활의 필요에서 생긴 자연발생적인 산물로 초기의 형태는 단순히 발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간단한 것³⁾이었으나 현대 패션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표현하고 컨셉을 완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아이템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패션 관련 언론 매체가 신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고, 갤러리나 박물관에서의 신발 전시, 유명 신발 브랜드의 콘테스트 등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신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⁴⁾ 또한 미국 드라마와 영화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의 인기로 ‘슈어홀릭(shoeholic)’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였고, 여주인공이 착용한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 ‘지미 추(Jimmy Choo)’, ‘크리스티앙 루부탱(Christian Louboutin)’, ‘로저 비비에르(Roger Vivier)’, ‘피에르 아디(Pierre Hardy)’ 등의 신발 브랜드들이 패션의 트렌드 메이커로 등장하였다.

신발 디자인은 신발 전문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가 발표한 뉴 룩(New Look)의 영향을 받은 앞이

뾰족하고 굽이 가는 하이힐 구두나 1960년대 메리 퀴트(Mary Quant)와 조안 위르(Joan Huir)의 미니스커트와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의 미래적인 의상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부츠 등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패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발은 현대 패션에서 토탈 패션을 완성하는 중요한 패션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에 관한 선행연구(권현주, 2001; 김민자 외, 2001)⁵⁾는 대부분이 신발의 변천이나 발달 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되거나 ‘프라다’나 ‘하이힐’같이 하나의 브랜드나 종류에 국한시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컬렉션에서 의상에 코디네이트된 신발의 조형성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신발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 영역을 확인하고 신발 트렌드 예측과 디자인 발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신발의 구조와 종류, 신발의 기원 및 변천양상을 살펴본 다음, 세계 4대 패션 컬렉션과 트렌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증 연구에서는 2001년 S/S시즌부터 2008/09년 F/W시즌까지의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 등의 세계 4대 패션컬렉션의 신발의 조형적 특성을 전체 특성과 시즌별, 컬렉션별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신발의 구조와 종류

1) 신발의 구조

신발의 구조는 크게 굽(heel), 갑피(upper), 창(sole)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굽은 원래 실용적인 목적

으로 만들어졌고, 굽의 모양보다 높이가 기능상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 용도에 따라 굽의 형태와 높이가 다르다. 굽은 구두의 뒤축 아래 부분에 부착되어 구두에서 발등을 올려주는 부분으로 굽의 인쪽은 브레스트(breast), 굽 밑의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힐 리프트(heel lift)라고 부른다.⁶⁾ 굽은 기능성과 동시에 그 높낮이 형상이 토 모양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굽의 종류는 굽의 모양과 높이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루이스 힐(Louis heel), 쿠반 힐(Cuban heel), 웨지 힐(wedge heel), 더치 힐(Dutch heel), 스택크 힐(stacked heel), 플랫 힐(flat heel), 스파이크 힐(spike heel), 아트 힐(art heel) 등으로 분류된다.⁷⁾ 루이스 힐은 프랑스 루이 14세(Louis XIV, 1643~1715) 시대에 처음으로 붙여진 명칭이며⁸⁾, 외관으로 보면 굽의 위아래는 넓고 브레스트로 가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가늘어지는 형태이다. 쿠반 힐은 원래 남미의 가우췌(Gauchos)지역에서 부츠의 형태에 직선적인 굽 모양으로⁹⁾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스타일이다. 웨지 힐은 옆에서 보면 나무를 쪼갤 때 쓰이는 췌기의 형상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¹⁰⁾ 구두의 뒤꿈치부터 샹크(shank)¹¹⁾의 앞부분까지 췌기모양으로 이어져 있어 발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더치 힐은 여성스러운 굽 모양에 길이를 짧게 축소한 모양¹²⁾으로 낮은 굽 모양이 앙증맞은 형태다. 스택크 힐은 원래 통가죽, 원피 등을 쌓아올린 것을 굽 모양으로 다듬은 모양¹³⁾으로 최근에는 스타일을 살려서 가죽을 쌓아 한 장의 가죽처럼 얇게 잘라내어 그 면이 보이도록 굽의 표면에 썩워서 마치 적상굽인 것처럼 효과를 내어 대량으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플랫 힐은 ‘플랫(flat)’의 의미 그대로 평평하고 낮은 굽 모양¹⁴⁾으로, 실내화처럼 편안하다. 스파이크 힐은 못같이 뾰족한 모양이며 스틸레토 힐과 같이 가늘고 높은 굽을 말한다. 아트 힐은 구두 디자인 너들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디자인되어 실용적인

것보다는 예술적인 목적에 의한 조형적인 형태이다.¹⁵⁾

굽피는 신발의 표면을 덮고 있는 가죽 부분으로 신발의 뼈대 역할을 한다. 신발 윗부분 전체를 가리키며, 뱀프(vamp), 쿼터(quarter), 카운터(counter) 등으로 구성된다. 뱀프는 신발의 앞부분을 뜻하는 용어로 토(toe)와 발등 위의 부분을 말하고, 쿼터는 발뒤꿈치와 옆면을 감싸는 신발 굽피의 뒷부분을 말한다.¹⁶⁾ 카운터는 신발 뒤꿈치 부위의 쿼터와 쿼터 안감(quarter lining) 사이에 넣는 월형심(月型芯)인데, 이것은 뒤꿈치 부위의 모양을 유지시켜서 신은 후에도 변형을 방지하고 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¹⁷⁾ 신발의 앞부분을 나타내는 토는 그 모양에 따라 굽 모양도 결정되므로 신발의 전체적인 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 요소이다. 토 모양은 일반적으로 포인트드 토(pointed toe), 라운드 토(round toe), 스퀘어 토(square toe), 테퍼리드 토(tapered toe), 오블리크 토(oblique toe), 블런티드 토(blunted toe) 등 6가지로 분류된다.¹⁸⁾ 포인트드 토는 토 스타일 중 가장 뾰족한 스타일로 같은 크기의 화형 중에 가장 길게 보인다. 라운드 토는 둥근 토 모양으로 같은 사이즈의 경우 신발이 짧아 보이지만 가장 편안한 토 모양이다. 스퀘어 토는 각이진 토 모양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캐주얼웨어나 청바지에 잘 어울린다. 테퍼리드 토는 점차 좁아지는 토 모양으로 포인트드 토와 라운드 토의 중간 정도의 토 라인으로 무난한 토 스타일이다. ‘오블리크’란 ‘비슷하게 기울어지거나 구부러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오블리크 토는 토끝이 약간 틀어진 모양이다. 블런티드 토는 투박한 토 모양으로 구두의 코끝이 주먹처럼 올라온 것으로, 토 라인은 테퍼리드 토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벗어난 형태이다. 이와 같이 신발 디자인의 주된 변화 요소는 특히 굽 모양(heel shape)과 토 모양(toe shape)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창은 발아래 신발의 밑 부분으로 주로 땅에 닿는 바깥창(out sole), 바깥창과 안창 사이를 채워주는 중창(mid sole), 발아래 부분인 안창(inner sole) 등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⁹⁾ 바깥 창은 지면에 접한 신발의 바닥부분으로 발바닥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고 미끄럼 방지와 발바닥 보호의 기능을 하며, 중창은 갑피, 굽, 창 바닥을 통합하는 본체로 발을 지지하는 기능과 충격방지의 기능을 한다. 안창은 신발의 갑피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²⁰⁾

2) 신발의 종류

신발은 유형에 따라 샌들(sandal), 슬리퍼(slipper), 구두(shoes), 부츠(boots)로 구분된다. 즉 발을 노출시키는 부분은 다르지만 개방형의 신발인 샌들과 슬리퍼, 그리고 가죽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발을 감싸는 폐쇄형의 신발인 구두와 부츠로 대별된다.²¹⁾ 샌들은 개방형의 신발로 발등과 발바닥을 연결하므로 발을 감싸는 다른 신발에 비하여 방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 일상화나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서 주로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는 신발이다.²²⁾ 슬리퍼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6세기부터였으며, 슬리퍼와 같은 의미의 용어에는 물(mule), 슬라이드(slide) 등이 있다. 슬리퍼는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신은 최초의 신발²³⁾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고 발을 압박하지 않으며 신고 벗기에 편하다. 구두는 주로 가죽으로 만든 서양식 신발로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어 ‘くつ’에서 유래되어 ‘구쓰’라고 부르다가 20세기 초부터 구두라고 하였다”²⁴⁾고 한다. 구두는 발목까지 오는 높이의 발을 감싸는 폐쇄형 신발로 발등 높이에 따라 부츠와 구별되고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슬리퍼와 구별된다.²⁵⁾ 부츠는 추위를 막거나 사막, 산악지대와 같이 황량한 지역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었던 신발로, 한랭을 막기 위해 천 또는 나무껍질에

서 양말이 생기고 이것과 샌들의 결합에서 장화가 생겼다고 한다.²⁶⁾ 부츠는 토 부분이 막혀 있는 폐쇄형 신발이며, 높이가 발목이나 그 이상까지 올라오는 긴 신발을 말한다.

2. 신발의 기원 및 변천양상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신발은 BC 3300년경의 이집트의 샌들 형태의 신발이라고 한다. 이집트(BC 3400~525)는 기후 조건상 열대지방의 열사(熱沙)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면과 발을 분리시키는 한 장의 나무판을 발바닥에 대고 끈으로 고정시킨 간단한 구조의 샌들을 신었다<그림 1>²⁷⁾ 이러한 샌들의 어원은 그 생김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널판지’라는 뜻의 라틴어 샌들리움(sandalium), 또는 고대 그리스어 샌들리온(sandalion)에서 비롯되었다.²⁸⁾ 이집트인들의 신발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똑같은 것을 신었고, 일부 상류층에서만 이용되었다.²⁹⁾ 한편 아시리아(BC 1200~540)인들은 메소포타미아 고원지대에 살던 산악 유목민으로 잦은 전쟁을 위해 남자용 샌들을 특별히 제작해서 신었고³⁰⁾, 동부의 고원 산악지대에 흩어져 살았던 페르시아(BC 600~300)인들은 추운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구두창이 없이 부드러운 가죽으로 발목을 감싸는 모카신(moccasin)을 신었다.³¹⁾ 크레타(BC 3000~1100)인들은 외출할 때는 샌들이나 굽이 있는 신발, 긴 부츠 등을 신었으며, 이러한 신발의 형태는 장식적이기보다는 기능적이었다.³²⁾

고대 그리스(BC 1200~146)인들은 초기에는 모두 맨발이었으나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샌들, 부츠, 구두 등의 다양한 신발이 등장하였고 발의 형태에 따라 신발의 좌·우 구분이 생겼다.³³⁾ 에트루니아(BC 800~300)인들의 신발은 가장 단순한 슬리퍼형에서 샌들, 부츠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슬리퍼는 한 장의 펠트나 천으로 간단히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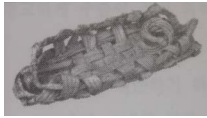
바닥과 발 위를 감싸는 형태였다. 로마 시대(BC 750~476)의 신발<그림 2>은 그리스와 비슷하나 정교함이 더해졌다. 실크로 만든 슬리퍼에서 가죽을 소재로 한 부츠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했고 그 중 샌들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엮는 끈의 모양이 그리스 때보다 더욱 복잡해져 로마 신발의 특징을 나타낸다.³⁴⁾

중세에는 지중해 중심의 문화권이 유럽으로 옮겨지면서 지중해의 따뜻한 기후와는 달리 서유럽의 추운 기후의 생활 여건에 따라 주로 구두나 부츠가 많았으며 슬리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비잔틴 시대(Byzantine: 395~1100)의 신발은 그리스와 로마의 샌들형에 비해 발을 더 감싼 스타일로 서유럽의 추운 기후 환경 때문에 그 종류는 샌들, 구두, 부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발목까지 올라오는 형식이었다.³⁵⁾ 한편, 로마네스크 시대(Romanesque: 1100~1200)의 신발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여자의 신발은 대개 목이 짧았다³⁶⁾고 한다. 동방과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비잔틴의 영향으로 11세기 말경부터는 앞이 뾰족한 구두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후의 고딕 감각이 이 시대에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³⁷⁾ 중세 말기인 13, 14세기는 근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이동성과 활동성을 생활 전반에 걸쳐 추구했다. 14세기 일반적인 남자 신발은 발목이 낮고 앞부리가 뾰족한 형태였는데 고딕 건축물의 뾰족한 감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발달하였다.³⁸⁾ 이 신발은 폴란드에서는 크랙코우(crackow), 프랑스에서는 폴렌(poulain)이라고 불렸는데, 신발의 앞은 뾰족하게 연장하여 발끝에서 25~30cm 정도 긴 것도 있었으며 신발의 끝을 끈으로 발목에 고정시키기도 했다. 이 시대에는 의상보다도 신발을 더 중요시하여 제작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바닥에 코르크가 붙은 가죽 신발이나 또는 타원형의 나무로 만든 패튼(patten)을 덧신었다고 한다.³⁹⁾

르네상스 시대(Renaissance: 1500~1600)를 맞이하면서 중세의 신분주의 사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전환되어 남녀 의상의 실루엣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⁴⁰⁾, 15세기 중엽까지 전성을 이루었던 고딕풍의 날카롭고 뾰족한 구두는 르네상스풍의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구두는 토가 넓적하게 변하여 오리 모양(duck shoes)의 진기한 형태가 되었다.⁴¹⁾ 16세기 후반에는 쇼핀(chopin)이라는 굽이 높은 신발이 이탈리아로부터 소개되었는데 높이는 5~30cm 정도로 다양하였고 귀부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였다<그림 4>.⁴²⁾

바로크 시대(Baroque: 1600~1700)의 신발은 의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하였는데, 특히 이 시대의 남성 신발은 바지 길이에 따라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풍의 짧은 바지 오 드 쇼오스(haut de chausses)가 유행하면서 무릎 위까지 오는 부츠가 남자들에게 애용되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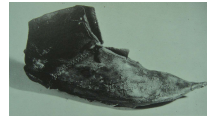
로코코 시대(Rococo: 1700~1790)에는 로코코 예술이 화려하게 꽃피던 시기로서, 섬세하고 낭만적이며 우아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⁴⁴⁾ 이 시대에는 제화공(shoemaker)이 예술가로서 높은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될 정도로 구두와 부츠는 복장과 예의를 중시하는 귀족에게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유지해야 할 목록 중 상위를 차지하였다.⁴⁵⁾ 18세기 초기까지는 앞이 각지고 넓은 구두가 유행했는데, 점차 앞 끝이 뾰족하고 길어졌다. 또한 굽이 매우 높아서 걷기가 불편했는데, 18세기 중엽 후에야 비로소 굽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부분이 둥글어지다가 1790년대에는 뒷굽이 없는 평평한 형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혁명의상에 따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또한 1730년대에는 발 모양에 맞추어 만들어진 편한 신발이 나타났다. 18세기 후기의 남성 신발로 펌프스(pumps)라는 가벼운 무용화가 유행했는데, 특징은 굽이 아주 낮거나 없으며 부드러운 가죽이나 천으로 만



<그림 1>
이집트시대 샌들, BC 3300
(출처: 『신발의 역사』, 2004, p.19)



<그림 2>
로마시대 샌들, AD 1세기
(출처: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1996, p.125)



<그림 3>
포인트드 토 형태의 신발, 12세기
(출처: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1996, p.203)



<그림 4>
쇼핀, 17세기
(출처: 『패션』, 2005, p.52)



<그림 5>
에스카르팽
(출처: 『신발의 역사』, 2004, p.89)



<그림 6>
극단적인 높은 굽의 부츠, 1880년대
(출처: 『SHOES』, 1989, p.403)

들었다.⁴⁶⁾ 귀부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발보다 작은 구두를 신었는데, 여러 가지 색의 형겔과 가죽으로 만들고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하여 하나의 예술품과 같이 만들었다.

19세기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Empire style: 1789~1815)의 남자는 판타롱(pantalon)과 함께 다양한 스타일의 신발을 신었는데, 헤시안 부츠(Hessian boots), 웰링턴 부츠(Wellington boots), 재키 부츠(Jackey boots), 가죽 펌프스 등이 있었다. 여성들의 신발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에스카르팽(escarpin)이라고 불리는 새틴, 브로케이드, 벨벳 등의 광택 있는 천에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굽이 없는 화려한 신발과 발목을 묶는 신발이 유행하였다<그림 5>.⁴⁷⁾ 로맨틱 스타일 시대(Romantic style: 1815~1848)에는 신발에서도 로맨틱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났다. 왕정복고 시대 여성들의 신발은 발에 꼭 맞도록 만들어졌고, 여기에 리본이나 자수, 보석 등의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몄으며⁴⁸⁾, 남성들은 굽이 약간 있는 검은 가죽 부츠를 애용하였다.⁴⁹⁾ 크리놀린 스타일 시대(Crinoline style: 1848~1870)의 신발은 고무의 이용과 리만 블랙(Lyman R. Black) 재봉

틀⁵⁰⁾로 구두 제조에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다.⁵¹⁾ 버슬 스타일 시대(Bustle style: 1870~1890)의 신발은 생활환경의 변화 및 기술 발달에 따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의 구두가 나타났는데 가장 널리 보급된 것은 짧은 부츠형이었다. 구두는 굽이 높고 우아한 곡선을 이루며 5인치 이상의 극단적인 높이의 굽이 나타났다<그림 6>.⁵²⁾ 아르누보 스타일 시대(Art nouveau style: 1890~1909)에 남자들의 활동성은 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발목까지 오는 부츠나 구두가 일반적인 신발 형태가 되었다.⁵³⁾

20세기 초, 벨 에포크 스타일 시대(Bell Époque style: 1907~1914)의 여자 구두는 어두운 색으로 스타킹, 수제화나 발끝이 뾰족한 부츠와 굽 높이가 알맞은 하이힐을 착용하였다.⁵⁴⁾ 1920년대는 여전히 굽이 낮은 실용적인 신발이 애용되었고, 스커트가 짧아짐에 따라 신발에 대한 관심이 커져 디자인이나 색상이 다양화되었다.⁵⁵⁾ 1930년대는 하루 일과의 다양한 역할에 맞는 신발이 만들어져 앞이 둥글고 힐이 낮아진 형태의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이 유행하였고⁵⁶⁾,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골프용, 항해용, 테니스용 신발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페라가모(Ferragamo)는 로저 비비에르가 발명한 코르크창을 응용하여 플랫폼 구두를 선보임⁵⁷⁾에 따라 웨지 힐과 플랫폼창은 30년대 후반에 패션계를 휩쓸었고, 이후에는 사치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졌다<그림 7>.⁵⁸⁾ 전쟁의 영향하에 있었던 1940년대의 대표적인 신발유형으로는 샌들, 펌프스, 플랫폼을 들 수 있다.⁵⁹⁾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1905~1957)가 선보인 ‘뉴 룩’, 즉 허리 부분을 잘록하게 강조한 상의에 물 흐르듯 매끈한 선을 자랑하는 폭이 넓은 스커트의 앙상블은 뾰족한 코에 높고 가는 굽의 하이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⁶⁰⁾ 1950년대 대표적인 신발이 스틸레토인데, 굽이 가늘고 긴 형태가 기승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잘 조화되었다.⁶¹⁾ 스틸레토는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제인 맨스필드(Jayne Mansfield)와 같은 섹스 심벌과 관계가 깊었으며 섹시함을 상징하였다.⁶²⁾ 정확히 스틸레토 힐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로저 비비에르가 1950년대에 그 첫 작품을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다<그림 8>.⁶³⁾

1960년대에는 가죽 가격의 폭등과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 소재가 등장하면서 구두의 소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주 시대’에 맞추어 앙드레 쿠레주와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 등은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영국 디자이너 메리 퀴트는 쿠레주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주입식 성형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쿠레주의 뒷굽이 없는 하얀 부츠는 파리와 런던에서 크게 유행하였다<그림 9>.⁶⁴⁾ 1970년대는 활동적인 여성을 위한 바지의 유행과 더불어 신발은 플랫폼 형태로 변하였다. 구두 디자이너들은 1940년대 말 유행이 사라진 플랫폼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자 그 인기와 함께 플랫폼 굽이 높아졌다<그림 10>.⁶⁵⁾ 1980년대의 대표적 신발 디자이너로는 마놀로 블라닉과 로저 비비에르를 들 수 있다.

마놀로 블라닉은 1970년대의 관능미를 연상시키는 스틸레토 힐에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하이힐을 유행시켰고⁶⁶⁾, 로저 비비에르는 1950년대 디오르와 함께 일할 때부터 창의적이고 장식적인 수공예적인 신발을 창조하였다<그림 11>.⁶⁷⁾ 1990년대는 북고풍 패션의 영향으로 스틸레토 힐이 다시 유행하였다. 일명 ‘리무진 구두’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하이힐은 실제적으로 걸어 다닐 필요가 없는 여자들이 신는 신발이라는 뜻을 내포하여, 일종의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의 대표적인 신발 디자이너로는 페라가모, 마놀로 블라닉 등을 들 수 있다. 페라가모는 1996년 흥행을 거둔 영화 『에비타(Evita)』에서 마돈나가 신은 구두를 제작하였으며, 마놀로 블라닉의 신발은 아이작 미즈라히(Issac Mizrahi), 토드 올드햄(Todd Oldham) 등의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12>.⁶⁸⁾ 2000년에는 섹시함을 강조하는 믹스 앤 매치(mix & match) 형태로 레이어드 하는 스타일링을 추구하였다. 신발에서도 이런 영향으로 섹시함과 함께 화려해지고 핑키함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화려한 골드, 블랙 등의 컬러와 진(jean), 퍼(fur) 등의 소재가 유행하였다.

3. 패션 컬렉션과 트렌드

1) 세계 4대 패션 컬렉션의 특징

일반적으로 파리 컬렉션은 우아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풍부한 감성, 전통적이나 장인기술, 섬세한 바느질, 화려함, 고급스러운 품질이 특징으로⁶⁹⁾, 자유롭고 독창적인 디자이너들의 감성, 예술적 실험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⁷⁰⁾ 밀라노 컬렉션은 파리의 시크함과 뉴욕의 실용성을 겸비하고, 창의성과 실용성이 함께 나타나며, 무엇보다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우아함과 세련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뛰어난 창조성에 있다.⁷¹⁾ 뉴욕컬렉션은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미국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캐주얼하고 편안하면서도 기능적인 아메리



<그림 7>
플랫폼 슈즈, Ferragamo,
1938년 (출처: 「20세기 패션」,
1992, p.93)



<그림 8>
스틸레토 힐, Roger Vivier,
1952-1953(출처: 「Histoire
Du Costume」, 1983, p.428)



<그림 9>
André Courrèges, 1960년대
(출처: 「Heavenly Sole」,
1989, p.996)



<그림 10>
플랫폼 슈즈, 1970년대
(출처: 「Heavenly Sole」,
1989, p.106)



<그림 11>
Roger Vivier, 1980년대
(출처: 「Heavenly
Sole」, 1989, p.108)



<그림 12>
Manolo Blahnik,
1990년대 (출처: 「구두,
그 취향과 우아함의
역사」, 2005, p.223)



<그림 13>
2003년 S/S New York
collection, Miu Miu
(출처: [http://www.
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4>
2002년 S/S Milan
collection, Emilio Pucci
(출처: [http://www.
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5>
2008년 F/W New York
collection, Marc Jacobs
(출처: [http://www.
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

카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다. ‘실용성’, ‘미니멀리즘’, ‘모던함’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어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식이 거의 없거나 절제돼 있고, 선이 간결하고 솔리드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⁷²⁾ 그러나 실험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가장 실용적이고 유통지향적이며 연예산업과 많이 연계되어 있다는 뚜렷한 특징⁷³⁾을 지니고 있다. 런던 컬렉션은 남성복의 테일러링, 클래식한 양모와 캐시미어, 여성의류, 그리고 혁신적인 젊은 층의 패션 등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⁷⁴⁾, 신인디자이너들의 젊고 신선한 시도로 실험적이고 극단적인 디자인으로 패션계의 주목을 받아왔다.⁷⁵⁾

2) 2001년 S/S-2008년 F/W 패션 트렌드

2001년에는 브리티시 룩(British look)과 80년대 디스코 스타일이 믹스 앤 매치되어 화려하고 새로운 브리티시 스타일이 나타났다.⁷⁶⁾ 이러한 트렌드는 신발 디자인에도 영향을 받아 믹스 앤 매치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002년은 패션의 고급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모던한 럭셔리 스타일의 유행으

로 신발에서도 이국적인 스타일과 럭셔리함이 가미된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들이 등장⁷⁷⁾하였고 <그림 13>, 2003년에는 이전의 펑키 스타일에 스포티, 밀리터리 스타일을 섹시하게 믹스 앤 매치한 형태가 나타났다. 스트리트 룩에서 트레이닝복이 일상화되어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나타났고⁷⁸⁾, 신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아 스니커즈와 구두, 부츠와 샌들 등 혼합된 종류의 신발 디자인이 나타났다<그림 14>. 2004년에는 린제이 로한(Lindsay Dee Lohan), 패리스 힐튼(Paris Whitney Hilton) 등이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함에 따라 패트리샤 필드(Patricia Field)가 스타일링한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인기로 주인공들이 착용한 의상과 신발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주인공 ‘캐리’가 착용한 크리스티앙 디오르, 마놀로 블라닉, 지미 추 등 신발이 주목받았고, ‘슈어홀릭’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다. 2005년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루즈한 실루엣이 나오기 시작했고, 러시아인 무드의 퍼 액세서리와 부츠, 골드 컬러가 강세였다. 신발에서는 화려해진 롱 부츠가 유행하였는데, 특히 샤넬의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타이 하이(thigh-high) 부츠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내고,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의 롱 부츠에는 브랜드 특유의 컬러풀한 기하학 무늬에 아플리케 장식이 되어 있었다.⁷⁹⁾ 2006년에는 미니원 피스가 레깅스와 함께 대중화되었고, ‘리틀 블랙(little black)’ 시대라고 명명할 만큼 블랙 컬러가 유행⁸⁰⁾하였는데,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독특한 커팅, 볼륨, 그리고 원 포인트만을 강조한 신발이 유행하였다. 2007년에는 스틸레토 힐은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유니크한 스타일과 색시한 스타일의 믹스 앤 매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8년에는 30년대의 초현실주의, 체크, 팝아트적인 카툰 등의 패턴이 나타났다. 신발에서는 예술적인 신발들이 컬렉션에 대거 발표되었는데,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역발상의 독특한 굽<그림 15>과 크리스털, 스팅클, 리본 등이 콜라주 기법으로 장식된 굽, 프라다의 회화나 금속 공예 작품처럼 예술적인 굽,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의 투명한 유리관을 체인으로 감싸 안은 수공예적인 굽⁸¹⁾ 등이 창의성과 예술성을 표현하였다.

III. 패션 컬렉션의 신발 디자인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패션 컬렉션 신발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모드 에 모드(MODE et MODE)』, 『보그(Vogue)』, 『패션 뉴스(Fashion News)』 등의 패션 잡지와 퍼스트뷰코리아(<http://www.firstviewkorea.com>), 하퍼스바자(<http://www.harpersbazaar.com>), 삼성패션연구소(<http://www.samsungdesign.net>), 스타일닷컴(<http://www.style.com>), 패션인사이트(<http://www.fi.co.kr>), 동아티비(<http://www.dongahtv.com>) 등의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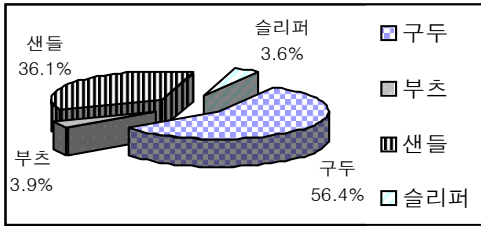
를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서 사진자료를 추출한 다음, 이 중에서 화질이 불분명하여 색채와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또는 폴 샷으로 형태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진을 제외한, 총 2,567장의 사진을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참고로 신발의 종류와 형태, 색채, 소재 등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발의 종류는 샌들, 슬리퍼, 구두, 부츠로 분류하였고, 형태는 신발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 모양과 힐 모양으로 나누었는데, 토 모양은 포인트드 토, 라운드 토, 스퀘어 토, 테퍼리드 토, 오블리크 토, 블린티드 토 등의 6가지로, 힐 모양은 루이스 힐, 쿠반 힐, 웨지 힐, 더치 힐, 스택크 힐, 플랫폼 힐, 스파이크 힐, 아트 힐 등 8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색채는 크게 단색과 다색으로 분류한 다음, 단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다색은 색채배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채색은 먼셀의 표색계의 10 색상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 무채색은 Wh(white), Gr(gray), Bk(black), 다색은 유사 배색, 대조 배색, 액센트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으로 분류하였다. 소재는 크게 단일 소재와 혼합 소재로 분류한 다음, 단일 소재는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한 가죽, 스웨이드, 페이턴트, 패브릭, 고무, 비닐 등 6가지로, 혼합 소재는 단일 소재들의 배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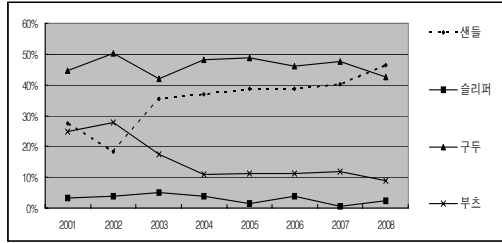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및 논의

1) 종류

총 2,567장의 패션 컬렉션의 신발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발의 종류는 구두가 5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림 16> 신발의 종류



<그림 17> 신발 종류의 시즌별 추이

샌들(36.1%), 부츠(3.9%), 슬리퍼(3.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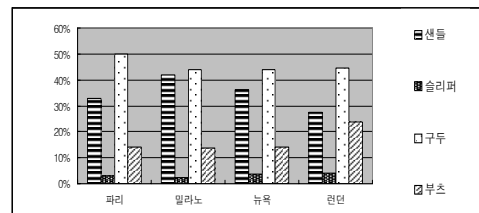
신발의 종류를 시즌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 <그림 17>과 같다. 2008년을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구두가 가장 많았고, 2002년을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는 구두 다음으로 샌들, 부츠, 슬리퍼 순으로 많았다. 2002년에는 구두 다음으로 부츠가, 2008년에는 샌들 다음으로 구두가 많았다. 구두는 2002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2002년 패션시장의 양극화와 함께 패션고급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의상이 모던한 럭셔리 경향으로 정장류가 대거 등장한 것과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던한 럭셔리 트렌드가 2003년까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달리 2003년에는 구두의 비중은 감소했다. 부츠는 2002년에는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03년부터는 계속 감소하여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시즌이 지날수록 다양한 트렌드가 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다른 종류의 신발들이 증가하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2008년에는 다른 시즌과 달리 구두보다 샌들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에 그리스 시대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튜닉이나 키톤과 같은 실루엣의 의상과 함께 신발에서도 영화 『글래디에이터』, 『트로이』 등에 나온 그리스 시대 스타일의 아이템의 등장으로 샌들이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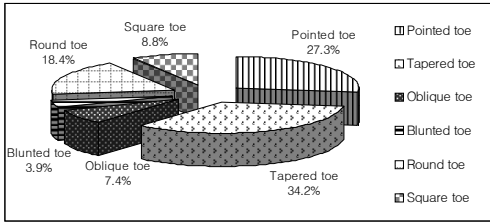
<표 1> 시즌별 신발의 종류

종류 시즌	빈도(%)				계
	샌들	슬리퍼	구두	부츠	
2001	75 (27.4)	9 (3.3)	122 (44.5)	68 (24.8)	274 (100)
2002	55 (18.4)	11 (3.7)	150 (50.2)	83 (27.8)	299 (100)
2003	132 (35.6)	19 (5.1)	156 (42.0)	64 (17.3)	371 (100)
2004	115 (37.0)	12 (3.9)	150 (48.2)	34 (10.9)	311 (100)
2005	113 (38.6)	4 (1.4)	143 (48.8)	33 (11.3)	293 (100)
2006	134 (38.8)	13 (3.8)	159 (46.1)	39 (11.3)	345 (100)
2007	129 (40.1)	2 (0.6)	153 (47.5)	38 (11.8)	322 (100)
2008	163 (46.3)	8 (2.3)	150 (42.6)	31 (8.8)	3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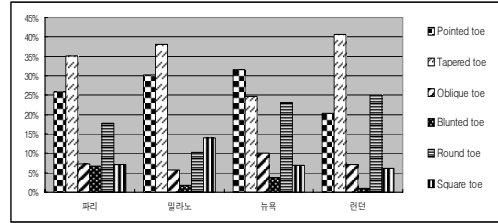
컬렉션별로는 모든 컬렉션에서 구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샌들, 부츠, 슬리퍼 순이었다. 특히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구두 못지않게 다른 컬렉션에 비해서 샌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런던 컬렉션에서는 부츠가 약 두 배 정도로 높았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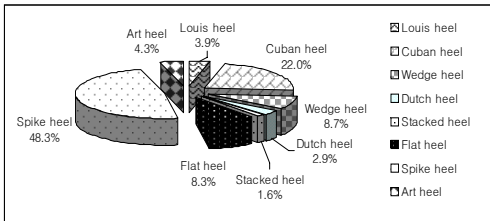
<그림 18> 컬렉션별 신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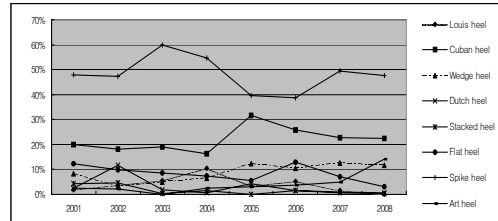
<그림 19> 토 모양



<그림 20> 컬렉션별 토 형태



<그림 21> 신발의 굽 형태



<그림 22> 신발 굽의 시즌별 추이

2) 형태

구두의 토를 분석한 결과, <그림 19>와 같이 테퍼리드 토(34.2%)가 가장 많았고 포인티드 토(27.3%)와 라운드 토(18.4%)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시즌별로 보면 <표 2> 와 같이 2001년부터 2003

<표 2> 시즌별 토 형태

시즌별	토모양 토	포인티드 토	테퍼리드 토	오블리크 토	블런티드 토	라운드 토	스퀘어 토	계
2001	74 (39.5)	46 (24.2)	16 (8.4)	0 (0.0)	26 (13.7)	27 (14.2)	189 (100)	
2002	98 (41.7)	62 (26.4)	15 (6.4)	7 (3.0)	47 (20.0)	13 (5.5)	242 (100)	
2003	93 (42.1)	65 (29.4)	17 (7.7)	3 (1.4)	38 (17.2)	8 (3.6)	224 (100)	
2004	42 (22.8)	75 (40.8)	2 (1.1)	1 (0.5)	56 (30.4)	8 (4.3)	184 (100)	
2005	32 (18.4)	62 (35.6)	16 (9.2)	2 (1.1)	36 (20.6)	28 (16.1)	176 (100)	
2006	27 (13.6)	83 (41.9)	15 (7.6)	29 (14.6)	25 (12.6)	19 (9.6)	198 (100)	
2007	33 (17.2)	83 (43.2)	17 (8.9)	11 (5.7)	38 (19.8)	10 (5.2)	192 (100)	
2008	33 (18.4)	65 (36.3)	19 (10.6)	9 (5.0)	26 (14.5)	27 (15.1)	179 (100)	

년까지 포인티드 토가 가장 많았지만, 2004년부터 비중이 감소한 것은 이전의 펑키 스타일에 스포티, 밀리터리 스타일이 믹스 매치된 형태가 유행하면서 트레이닝복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일상화되면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낸 블런티드 토가 2006년에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복고풍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 투박하고, 넓은 토 모양의 워커, 장화 등과 같은 신발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컬렉션별로는 뉴욕 컬렉션을 제외한 파리, 밀라노, 런던 컬렉션에서는 테퍼리드 토가 가장 많았다. 반면 뉴욕 컬렉션에서는 포인티드 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테퍼리드 토, 라운드 토가 많이 나타났다<그림 20>.

신발의 굽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스파이크 힐이 48.3%로 가장 많았고, 쿠반 힐도 22.0%를 차지하였다. 웨지 힐 8.7%, 플랫 힐 8.3%, 아트 힐 4.3%, 루이스 힐 3.9%, 더치 힐 2.9%, 스택크 힐 1.6%였다.

시즌별로는 <표 3>, <그림 22>와 같이 모든 시즌에서 스파이크 힐이 가장 많았다. 2003년에는

<표 3> 시즌별 신발의 굽 형태

빈도(%)

굽 모양 시즌별	루이스 힐	쿠반 힐	웨지 힐	더치 힐	스택크 힐	플랫 힐	스파이크 힐	아트 힐	계
2001	5(1.8)	55(20.1)	23(8.4)	7(2.6)	12(4.4)	34(12.4)	131(47.8)	7(2.6)	274(100)
2002	11(3.7)	54(18.1)	9(3.0)	35(11.7)	14(4.7)	29(9.7)	141(47.2)	6(2.0)	299(100)
2003	20(5.4)	71(19.1)	18(4.9)	7(1.9)	1(0.3)	32(8.6)	222(59.8)	0(0.0)	371(100)
2004	32(10.3)	51(16.4)	20(6.4)	2(0.6)	5(1.6)	23(7.4)	170(54.7)	8(2.6)	311(100)
2005	10(3.4)	93(31.7)	36(12.3)	13(4.4)	0(0.0)	16(5.5)	116(39.6)	9(3.1)	293(100)
2006	18(5.2)	89(25.8)	36(10.4)	5(1.4)	5(1.4)	45(13.0)	134(38.8)	13(3.8)	345(100)
2007	5(1.6)	73(22.7)	41(12.7)	3(0.9)	2(0.6)	23(7.1)	159(49.4)	16(5.0)	322(100)
2008	0(0.0)	79(22.4)	41(11.6)	2(0.6)	1(0.3)	11(3.1)	168(47.7)	50(14.2)	352(100)

아트 힐, 2005년에는 스택크 힐, 2008년에는 루이스 힐이 없었고, 거의 모든 시즌에 더치 힐이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스파이크 힐은 특히 2003년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버 사이즈 이지 룩의 유행과 웰빙,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과활동으로 굽이 낮아지고 있다는 국내 통계와는 상관없이 신발은 높은 굽과 뾰족한 힐이 트렌드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트 힐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해서 2008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마크 제이콥스의 역발상의 독특한 굽과 크리스탈, 스팅클, 리본 등이 콜라주 기법으로 장식된 굽, 프라다의 회화나 금속 공예 작품처럼 예술적인 굽, 칼 라거펠트의 투명한 유리관을 체인으로 감싸 안은 수공예적인 굽 등에서 볼 수 있다.

신발의 토 모양을 컬렉션별로 보면 모든 컬렉션에서는 스파이크 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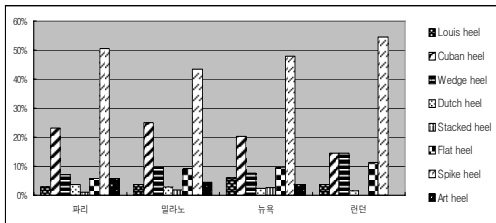
로는 파리, 밀라노, 뉴욕 컬렉션에서는 쿠반 힐, 런던 컬렉션에서는 쿠반 힐과 웨지 힐이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23>.

3)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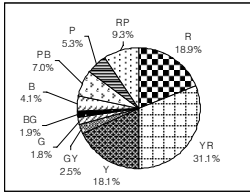
신발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 단색은 66%, 다색은 34%로 나타났다. 단색 66%중에서 유채색(34%)과 무채색(32%)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채색에서는 YR계열(31.1%)이 가장 많았고, R(18.9%), Y계열(18.1%)도 많이 나타났으며<그림 24>, 무채색에서는 블랙(black)(68.2%)이 가장 많았고, 화이트(white)(16.6%)와 그레이(gray)(15.2%) 계열은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25>.

다색에서는 액센트 배색이 50.7%로 가장 많았고, 대조 배색 27.4%, 유사배색 21.3%이었으며, 그라데이션 배색 0.6%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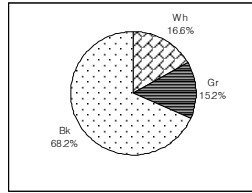
시즌별로 신발의 색채 특성은 단색의 경우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시즌에서 블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에는 YR계열, 2004년, 2006년에는 Y계열, 2008년에는 그레이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시즌에 GY, G, BG 계열은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블랙은 2003년, 2006년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에는 남성적인 감각이 가미된 도시적인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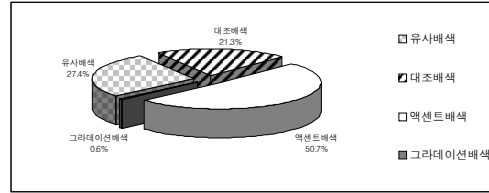
<그림 23> 컬렉션별 신발 굽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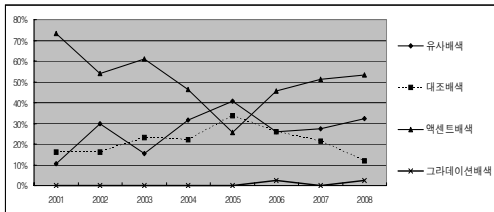
<그림 24>
유채색 특성



<그림 25>
무채색 특성



<그림 26>
신발의 배색 특성



<그림 27>
시즌별 신발의 색(배색)

이 등장하였고, 2006년 역시 남성적인 절제미와 여성적인 감각이 혼합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신발의 색채에서도 블랙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색채 배색은 <그림 27>과 같이 2005년을 제외하고는 액센트 배색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액센트 배색 다음으로 2001년, 2003년에는 대조 배색, 2002년, 2004년, 2007년, 2008년에는 유사배색이었으며, 2006년에는 유사배색과 대조배색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5년에는 유사배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조배색이었으며 그라데이션 배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유사배색이 2008년에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약간의 톤의 변화를 주어 배합한 체크 문양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3년과 2005년 대조 배색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

<표 4> 시즌별 신발의 색(단색)

빈도(%)

컬러 시즌별	유채색										무채색			계
	R	YR	Y	GY	G	BG	B	PB	P	RP	Wh	Gr	Bk	
2001	24 (12.8)	43 (22.9)	18 (9.6)	3 (1.6)	1 (0.5)	1 (0.5)	4 (2.7)	3 (1.6)	0 (0.0)	6 (3.2)	17 (9.0)	5 (2.7)	62 (33.0)	187 (100)
2002	24 (11.3)	54 (25.5)	9 (4.2)	3 (1.4)	2 (0.9)	6 (2.8)	0 (0.0)	3 (1.4)	5 (2.4)	11 (5.2)	19 (9.0)	3 (1.4)	73 (34.4)	212 (100)
2003	23 (8.6)	29 (10.8)	22 (8.2)	4 (1.5)	2 (0.7)	0 (0.0)	7 (2.6)	8 (3.0)	8 (3.0)	14 (5.2)	26 (9.7)	10 (3.7)	115 (42.9)	268 (100)
2004	20 (9.3)	29 (13.4)	31 (14.4)	3 (1.4)	5 (2.3)	3 (1.4)	6 (2.8)	7 (3.2)	4 (1.9)	6 (2.8)	15 (6.9)	17 (7.9)	70 (32.4)	216 (100)
2005	26 (14.4)	29 (16.1)	15 (8.3)	1 (0.6)	3 (1.7)	2 (1.1)	8 (4.4)	10 (5.6)	12 (6.7)	12 (6.7)	14 (7.8)	8 (4.4)	40 (22.2)	180 (100)
2006	22 (8.6)	30 (11.7)	35 (13.6)	4 (1.6)	1 (0.4)	2 (0.8)	6 (2.3)	5 (1.9)	5 (1.9)	6 (2.3)	24 (9.3)	20 (7.8)	97 (37.7)	257 (100)
2007	20 (8.4)	36 (15.1)	21 (8.8)	4 (1.7)	0 (0.0)	1 (0.4)	4 (1.7)	10 (4.2)	6 (2.5)	13 (5.5)	20 (8.4)	33 (13.9)	70 (29.4)	238 (100)
2008	12 (5.5)	31 (14.2)	13 (5.9)	1 (0.5)	2 (0.9)	2 (0.9)	2 (0.9)	17 (7.8)	8 (3.7)	16 (7.3)	10 (4.6)	37 (16.9)	68 (31.1)	2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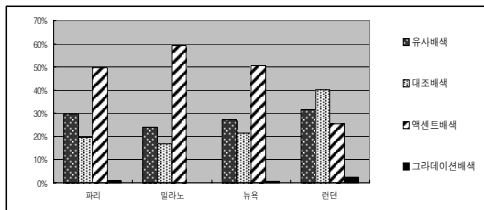
<표 5> 컬렉션별 신발의 색(단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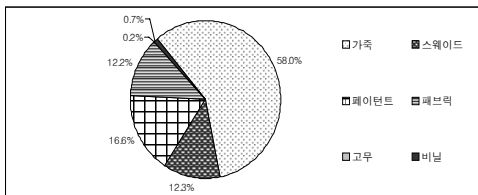
컬러 시즌별	유채색									무채색				계
	R	YR	Y	GY	G	BG	B	PB	P	RP	Wh	Gr	Bk	
파리	70 (11.0)	96 (15.1)	54 (8.5)	12 (1.9)	9 (1.4)	6 (0.9)	15 (2.4)	23 (3.6)	16 (2.5)	30 (4.7)	66 (10.4)	47 (7.4)	193 (30.3)	637 (100)
밀라노	65 (13.0)	87 (17.4)	35 (7.0)	5 (1.0)	5 (1.0)	8 (1.6)	8 (1.6)	21 (4.2)	22 (4.4)	27 (5.4)	28 (5.6)	44 (8.8)	144 (28.9)	499 (100)
뉴욕	33 (8.0)	73 (17.6)	60 (14.5)	6 (1.4)	2 (0.5)	2 (0.5)	10 (2.4)	16 (3.9)	5 (1.2)	19 (4.6)	31 (7.5)	35 (8.4)	123 (29.6)	415 (100)
런던	3 (1.3)	25 (11.0)	15 (6.6)	0 (0.0)	0 (0.0)	1 (0.4)	5 (2.2)	3 (1.3)	5 (2.2)	8 (3.5)	20 (8.8)	7 (3.1)	135 (59.5)	227 (100)

것은 2003년에는 스트라이프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컬러를 통해, 2005년에는 화이트와 블랙으로 배색된 신발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는 댄디한 스타일이 트렌드였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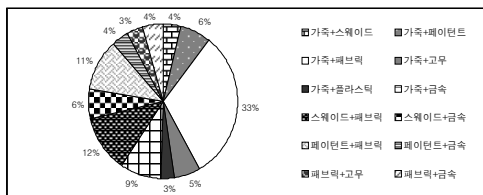
컬렉션별로는 <표 5>에서와 같이 모든 컬렉션에서 블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파리,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R계열, 뉴욕 컬렉션에서는 Y계열, 런던 컬렉션에서는 그레이계열이 많이 나타났다. 색채 배색은 <그림 28>과 같이 파리, 밀라노, 뉴욕 컬렉션에서는 액센트 배색, 유사 배색, 대조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 순으로 나타난 반면, 런던 컬렉션에서는 대조 배색이 가장 많았고, 유사 배색, 액센트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 순이었다.



<그림 28> 컬렉션별 신발의 색(배색)



<그림 29> 신발의 단일 소재 특성



<그림 30> 신발의 혼합 소재 특성

4) 소재

신발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 단일 소재가 83.5%, 혼합 소재는 16.5%로 나타났다. 단일 소재는 가죽이 58.0%로 가장 많았고, 페이턴트(16.6%), 스웨이드(12.3%), 패브릭(12.2%), 비닐(0.7%), 고무(0.2%) 순이었다<그림 29>. 혼합 소재는 가죽+패브릭이 33%로 가장 많았고, 스웨이드+패브릭이 12%, 페이턴트+패브릭이 11%였다<그림 30>.

시즌별 단일 소재의 특성은 <표 6>과 같이 모든 시즌에서 가죽이 가장 많았다. 가죽 이외 다른 소재는 2001년, 2006년, 2008년에는 페이턴트,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스웨이드, 2005년, 2007년에는 패브릭이 많았다. 거의 모든 시즌에서 고무, 비닐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발 산업자체가 하이테크 산업화 되어가면서 점차 증

<표 6> 시즌별 신발의 단일 소재

소재 시즌별	빈도(%)						
	가죽	스웨이드	페이턴트	패브릭	고무	비닐	계
2001	143 (56.1)	28 (11.0)	59 (23.1)	25 (9.8)	0 (0.0)	2 (0.8)	257 (100)
2002	171 (66.3)	36 (14.0)	24 (9.3)	27 (10.5)	0 (0.0)	0 (0.0)	258 (100)
2003	116 (67.9)	42 (13.6)	34 (11.0)	23 (7.5)	1 (0.3)	2 (0.6)	218 (100)
2004	162 (60.2)	39 (14.5)	35 (13.0)	33 (12.3)	0 (0.0)	6 (2.2)	275 (100)
2005	103 (48.1)	33 (15.4)	35 (16.4)	43 (20.1)	0 (0.0)	2 (0.9)	216 (100)
2006	158 (50.8)	24 (7.7)	88 (28.3)	41 (13.2)	0 (0.0)	0 (0.0)	311 (100)
2007	150 (53.8)	38 (13.6)	40 (14.3)	51 (18.3)	3 (1.1)	2 (0.7)	284 (100)
2008	163 (63.4)	26 (10.1)	46 (17.9)	22 (8.6)	0 (0.0)	0 (0.0)	257 (100)

가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가죽은 2003년까지 신발의 기본을 이루는 소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5년까지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클

래식 트렌드의 경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신발의 소재 경향이 점점 패션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시즌별 혼합 소재의 특성<표 7>은 2001년을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가죽과 패브릭의 혼합 소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02년, 2005년에는 스웨이드+패브릭, 2003년, 2006년에는 가죽+금속, 2004년에는 페이턴트+패브릭, 2007년에는 가죽+페이턴트, 2008년에는 스웨이드+금속이 많았으며, 2001년에는 페이턴트+패브릭이 많이 나타났다. 가죽+패브릭은 2003년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신발에 기본 소재인 가죽에 의상과 동일한 패브릭을 사용해 의상과 조화되는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패브릭+고무는 2007년에 큰 폭으로 빈도가 상승하였다. 이는 퓨처리즘과 스포티즘의 영향으로 스니커즈와 구두, 스키화와 구두 등 믹스된 신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표 7> 시즌별 신발의 혼합 소재

소재 시즌별	가죽							스웨이드		페이턴트		패브릭		계
	스웨이드	페이턴트	패브릭	고무	플라스틱	금속	패브릭	금속	패브릭	금속	고무	금속		
2001	0 (0.0)	0 (0.0)	2 (13.8)	5 (29.4)	0 (0.0)	1 (5.9)	4 (23.5)	1 (5.9)	8 (47.0)	1 (5.9)	0 (0.0)	0 (0.0)	17 (100)	
2002	4 (9.8)	0 (0.0)	13 (31.7)	2 (4.9)	2 (4.9)	9 (22.0)	11 (26.8)	0 (0.0)	0 (0.0)	0 (0.0)	0 (0.0)	0 (0.0)	41 (100)	
2003	2 (3.7)	3 (5.6)	27 (50.0)	7 (13.0)	2 (3.7)	8 (14.8)	5 (9.3)	0 (0.0)	2 (3.7)	0 (0.0)	0 (0.0)	4 (7.4)	60 (100)	
2004	0 (0.0)	3 (8.4)	9 (25.2)	2 (5.6)	0 (0.0)	0 (0.0)	0 (0.0)	1 (2.8)	8 (48.3)	3 (5)	7 (46.6)	3 (8.4)	36 (100)	
2005	0 (0.0)	0 (0.0)	30 (58.8)	1 (2.0)	3 (5.9)	5 (9.8)	12 (23.5)	3 (5.9)	9 (19.8)	4 (7.8)	2 (3.9)	8 (15.7)	77 (100)	
2006	4 (13.3)	0 (0.0)	17 (56.7)	1 (3.3)	1 (3.3)	6 (20.0)	1 (3.3)	0 (0.0)	3 (10.0)	1 (3.3)	0 (0.0)	0 (0.0)	34 (100)	
2007	3 (10.0)	6 (20.0)	10 (33.3)	4 (13.4)	0 (0.0)	1 (3.3)	3 (10.0)	3 (10.0)	5 (14.3)	0 (0.0)	2 (6.7)	0 (0.0)	38 (100)	
2008	3 (4.3)	14 (20.3)	19 (27.5)	0 (0.0)	4 (5.8)	6 (8.7)	12 (17.3)	16 (23.2)	9 (13.0)	6 (8.7)	3 (4.3)	3 (4.3)	95 (100)	

<표 8> 컬렉션별 단일 소재

컬렉션별 \ 소재	빈도(%)						
	가죽	스웨이드	페이턴트	패브릭	고무	비닐	계
파리	431 (59.3)	72 (9.9)	130 (17.9)	91 (12.5)	1 (0.1)	2 (0.3)	727 (100)
밀라노	366 (54.7)	98 (14.6)	118 (17.6)	85 (12.7)	0 (0.0)	2 (0.3)	669 (100)
뉴욕	282 (58.1)	63 (13.0)	75 (15.5)	58 (12.0)	3 (0.6)	4 (0.8)	485 (100)
런던	180 (62.5)	33 (11.5)	38 (13.2)	31 (10.8)	0 (0.0)	6 (2.1)	288 (100)

컬렉션별 단일소재의 특성은 <표 8>과 같이 모든 컬렉션에서 가죽이 가장 많았다. 가죽 다음으로는 파리 컬렉션에서는 패브릭이 많았고,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서는 스웨이드가 많았다. 혼합 소재는 모든 컬렉션에서 가죽+패브릭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파리와 뉴욕 컬렉션에서는 스웨이드+패브릭, 밀라노와 런던 컬렉션에서는 가죽+금속이 많았다<표 9>.

V. 결론

이상으로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등의 세계 4대 컬렉션을 대상으로 신발의 조형적 특성을 시즌별 추이와 컬렉션별로 그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컬렉션에 코디네이트된 신발의 조형적 특성 중 종류와 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테퍼리드 토와 스파이크 힐, 색채는 단색의 블랙과 액센트 배색, 소재는 단일 소재의 가죽과 혼합 소재인 가죽+페이턴트가 가장 많았다. 둘째, 신발 디자인의 시즌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패션 트렌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댄디한 스타일과 미래주의가 트렌드였던 2005년에는 쿠반 힐, 화이트와 블랙, 에스닉 스타일과 복고풍이 트렌드였던 2006년에는 블러티드 토, 블랙과 Y계열, 미니멀리즘이 강세였던 2007년에는 라운드 토, 패브릭+고무의 혼합 소재, 클래식 트렌드와 그리스 스타일 시대의 아이템이 유행한 2008년에는 샌들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셋째, 컬렉션별로 신발의 조형적 특성의 차이점은 의상만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 런던 컬렉션에서는 신발의 색채 중 블랙이 다른 컬렉션에 비해 두 배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색 또한 대조 배색이 가장 높게 나타나 파리, 밀라노, 뉴욕 컬렉션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패션에서 개성 있는 토탈 패션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는 신발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

<표 9> 컬렉션별 신발의 혼합 소재

컬렉션별 \ 소재	가죽						스웨이드		페이턴트		패브릭		계
	스웨이드	페이턴트	패브릭	고무	플라스틱	금속	패브릭	금속	패브릭	금속	고무	금속	
파리	9 (5.2)	6 (3.5)	48 (27.9)	10 (5.9)	2 (1.2)	12 (7.0)	21 (13.9)	12 (7.0)	19 (11.1)	12 (7.0)	8 (4.7)	10 (5.8)	169 (100)
밀라노	3 (2.8)	9 (8.4)	36 (33.6)	7 (6.5)	4 (3.7)	14 (13.1)	9 (8.4)	5 (4.7)	11 (10.3)	1 (0.9)	4 (3.8)	4 (3.7)	107 (100)
뉴욕	4 (4.1)	8 (8.2)	35 (35.7)	5 (5.1)	6 (6.1)	6 (6.1)	15 (15.3)	7 (7.1)	8 (8.2)	1 (1.0)	2 (2.0)	1 (1.0)	98 (100)
런던	1 (4.8)	3 (14.3)	8 (33.3)	1 (4.8)	1 (4.8)	4 (19.0)	0 (0.0)	0 (0.0)	2 (9.5)	1 (4.8)	0 (0.0)	3 (14.3)	24 (100)

해 신발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매 시즌 새로운 패션을 제시해야하는 디자이너에게 토탈 룩의 완성이 되는 신발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패션 컬렉션의 신발 디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실물이 아닌 패션 잡지와 웹 사이트에서 추출한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한 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신발에만 국한된 연구가 아닌 의상과 신발 그리고 백 등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영인 외 (2000).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p.4.
- 본 연구에서는 신발을 footwear로 지칭하였고 샌들, 슬리퍼, 구두, 부츠 전체를 포함한다. shoes라는 단어가 신발 전체를 나타내며, 여성용 구두를 지칭하기도 한다. 구두를 따로 지칭하는 shoes와 신발 전체를 지칭하는 shoes가 중복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를 참고하여 신발 전체를 footwear로 지칭하였으며 구두에 한정하여 shoes로 표현하였다.
- 김칭 (1984). 패션과 예술, 서울: 금오출판사, p.284.
- 『스와로브스키의 구두전시회』, 신사동, 2006. 9.
『걷는 예술, 이탈리아 아트 구두전』,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 현대백화점 주최, 2006. 10.
『섹스 앤 더 시티, 구두전시회』, 코엑스 메가박스 전시, 2008. 5.
『세상에 하나뿐인 구두』, 롯데 주최, 2008. 9.
『금강제화, 아트페스타별』, 부산국제영화제 전시, 2008. 10.
- 권현주 (2000). 동·서양 신발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2), pp.38-61.
김민자 외 (2001). 서양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I, 복식, 51(5), pp.157-173.
- Calasibetta, C. (1975).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184.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62.
- Turner, W. R. (1984). The Mode in Footwea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106.
- 김은경 (2001). 20세기 신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 조규화 (1995). 服飾辭典, 서울: 경춘사, p.424.
- 생크(shank)는 신발의 발바닥면의 허리부분을 말한다.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p.302.
- Calasibetta, C. 앞의 책, p.26.
- 김제심 (1992). 제화의 지식 -구두의 제법과 재료, 서울: 한국피혁산업정보센터, p.139.
- Calasibetta, C. 앞의 책, p.180.
- 이현주 (2000).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하이힐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Calasibetta, C. 앞의 책, p.192.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62.
- 위의 논문, p.163.
- Calasibetta, C. 앞의 책, p.195.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6). 2000년을 향한 산업기술개발 수요, 서울: 산업자료센터, p.4.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62.
- 장길환, 허진영 (1992). 신발디자인, 서울: 조형사, p.54.
- Yarwood, D. (1990). The Encyclopedia of Wold Costume, New York: Bonanza Book, p.350.
- 김민수 외 (1997). 국어대사전, 운평어문연구소편, 서울: 금성출판사, p.355.
- 김은경. 앞의 논문, p.72.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63.
- 최경화 (1992).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Calasibetta, C. 앞의 책, p.158.
- 이희연 (1982). 서양복식발달사, 서울: 중앙기능개발연구소, p.30.
- Turner, W. R. 앞의 책, p.11.
- 정홍숙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8.
- 김은경. 앞의 논문, p.31.
- Turner, W. R. 앞의 책, p.27.
- Boucher, F. (1996).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Thames and Hudson, p.125.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59.
- 위의 논문, p.160.
- 정홍숙. 앞의 책, p.155.
- 위의 책, p.156.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60.
- 정홍숙. 앞의 책, p.196.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60.
- Lester, K. M. & Oerke, B. V. (2004). Accessories of Dres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p.261.
- Turner, W. R. 앞의 책, p.288.
- 정홍숙. 앞의 책, p.272.
- 김민자 외. 앞의 논문, p.161.
- 김은경. 앞의 논문, p.33.
- Boccardi, L. (1993). Party Shoes, New York: Zanfi

- Editor, p.138.
- 48) 정홍숙. 앞의 책, p.270.
- 49) 김명웅 (2004). 신발의 역사, 서울: 선진문화사, p.119.
- 50) 이 제화기는 바닥가죽과 윗가죽을 결합시키는 재봉틀로 1858년 특허를 받았다. 김은경. 앞의 논문, p.35.
- 51) 임영미 (1994). 옷과 장신구와 입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 경춘사, p.141.
- 52) 김은경. 앞의 논문, p.36.
- 53) Steele, V. (2005). SHOES, A Lexicon of Style, New York: Trafalgar Square, p.78.
- 54) Bond, D. (1981). 20세기 패션, 정현숙 옮김 (1992). 서울: 경춘사, p.20.
- 55) 김명웅. 앞의 책, p.141.
- 56) 김영인 외. 앞의 책, p.74.
- 57) Mcdowell, C. (1989). SHOES-Fashion and Fantasy, London: Thames and Hudson, p.180.
- 58) 김영인 외. 앞의 책, p.76.
- 59) 김은경. 앞의 논문, p.54.
- 60) Mendes, V. & De la Haye, A. (2000). 20세기패션, 김정은 옮김 (2003). 서울: 시공사, pp.138-139.
- 61) Trasko, M. (1989). Heavenly Soles : Extraordinary 20th Century, New York: Perseus Distribution Services, p.20.
- 62) Mcdowell, C. 앞의 책, p.196.
- 63) Pratt, L. & Woolley, L. (1999). 구두 그 취향과 우아함의 역사, 김희상 옮김 (2005). 서울: 작가정신, p.197.
- 64) Bond, D. 앞의 책, p.20.
- 65) Pattison, A. & Cawthorne, A. (1998). A Century of Style: Shoes-Icons of Style in the 20th Century, London: Apple press, pp.126-127.
- 66) Pratt, L. & Woolley, L. 앞의 책, p.218.
- 67) 김영인 외. 앞의 책, p.137.
- 68) 위의 책, p.145.
- 69) 김수윤 (2001). 1990년대 전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70) Dickerson, K. G. (1997). 패션비즈니스의 내면, 장남경 외 옮김 (2004).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p.426.
- 71) 박성필 (2006). 프레타포르테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트렌드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72) 위의 논문, p.27.
- 73) 한국패션협회 (1999). 한국패션총람, 서울: 한국패션협회, p.405.
- 74) Frings, G. P. (1982). 패션개념에서 소비자까지, 조길수 외 옮김 (1994).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p.189.
- 75) 한국패션협회. 앞의 책, p.405.
- 76) 오중석 (2001. 10). 패션트렌드 Paper Game, VOGUE KOREA, 자료검색일 2008. 4. 18. <http://www.style.com>
- 77) Spring 2002 Womens Collections (2002. 2).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8. 4. 27. <http://www.firstviewkorea.com>
- 78) 김이영, 최순영 (2003. 5). S Topic Fashion, VOGUE KOREA, 자료검색일 2008. 4. 30. <http://www.style.com>
- 79) 하주희 (2004. 11). Fashion Power TOP 10, HARPER'S BAZAAR, 자료검색일 2008. 5. 8. <http://www.harpersbazaar.com>
- 80) 이선영 (2005. 12). Little Black, HARPER'S BAZAAR, 자료검색일 2008. 5. 8. <http://www.harpersbazaar.com>
- 81) 김현태 (2008. 5). SHOES ISN'T SHOES, VOGUE KOREA, 자료검색일 2008. 5. 8. <http://www.style.com>

A Study on the Footwear Design of Fashion Collections

**- Focused on the Paris · Milano · New York · London Collections
from 2001 S/S to 2008 F/W -**

Kim, Eun Young · Lee, Mi Sook⁺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footwear in fashion collections, analyze its creative potentials in footwear design, and to provide a basis for the trend forecast and idea development for the future footwear design. Photos from the 2001-2008 Paris, New York, and London collections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ir categories, shapes, colors, and materials. As a result, closed toe heels were the most popular items in fashion collections, followed by sandals, boots, and slippers. In terms of the shapes of toe and heel, tapered toes and spike heels appeared most frequently. In terms of color, there were twice as many single colors than multicolor, and the number of monochrome and chromatic color were about the same. YR series appeared most frequently among the chromatic colors, and there were more black than white. Accent color combinations were more popular than those of gradation. In terms of material, shoes made out of one material appeared more often than those of mixed materials in the order of leather, patent, suede, fabric, vinyl, and rubber. For mixed materials, a mixture of leather and fabric was most preferred.

Key words: footwear, footwear design, total fashion, fashion collection, fashion trend